

‘그랜드슬램 도전’ 안세영 “올림픽 金, 마지막 퍼즐”

올림픽·아시안게임·아시안선수권·세계선수권 우승

2024 파리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 소속 또는 출신 선수로는 10개 종목에 15명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전남일보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이들을 조명한다.

편집자주



2024 파리 올림픽 광주·전남 태극전사 <1>

나주에서 태어나 품암초-광주제중-광주체고를 나온 ‘셔틀콕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나선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해 4대 대회를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이미 세계선수권대회(2023년 코펜하겐 대회)와 아시안게임(2023년 항저우 대회) 정상에 오른 안세영에게는 올림픽이 가장 큰 산이다. 그는 2021년 도쿄 대회에서는 8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안세영은 “더운 날씨에도 힘들게 올림픽을 준비한 만큼 파리에서 낭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를 부상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좋은 계획이 생겼다. 목표를 달성하고 올해를 마친다면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스스로에게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무릎 부상 여파로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에 맞춰 100%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췄다.

27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 돌입 치쎬페이·날반토타와 조별리그 1번 시드… 16강 진출 시 부전승 “파리에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안세영은 “항상 파리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몸을 끌어올리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최악의 몸 상태에서도 많은 경기를 뛰 어봤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좋은 몸 상태로 뛸 수 있다는 믿음과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파리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꾸준히 머릿속에 새기고 있다.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왕좌에 오르는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기도 했다.

안세영은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대표팀에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고 타일러도 주셨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다”며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말들을 되새겼더니 제 생각과 몸 상태가 바뀌었다. 경기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시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이번 대회 1번 시드를 받았다. 프랑스의 치쎬페이(Qi Xuefei), 불가리아의 칼로야나날반토타(Kaloyana Nalbantova)와 치르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6강 토너먼트에서는 부전승으로 8강에 직행하는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스텝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별리그부터 모든 선수들이 라

이벌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순간,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며 “천위페이 선수를 라이벌로 많이 거론하지만 대진에서 붙을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이 라이벌이다. 누가 댔든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결전지인 프랑스로 떠났다. 대한체육회가 풍텐블로에 마련한 ‘팀코리아 파

리 플랫폼’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뒤 22일 파리 선수촌에 입촌, 27일 시작되는 조별리그를 준비한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다. 완벽하게 끼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 모든 걸 다 바치겠다. 한국에 돌아올 때는 금메달과 함께 삼페인을 터트리면서 입국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

이장관 “2위, 운이 아님을 증명하겠다”

전남, 부산에 2-3 석패



부산아이파크에 일격을 당하며 무패 행진이 11경기에서 중단된 이장관(사진) 전남드래곤즈 감독이 이를 악물었다. 호성적에도 불구하고 행운이라는 비아냥과 무관심까지, 팀으로서 이를 이겨내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전남은 지난 20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과 하나은행 K리그2 2024 23라운드 홈경기에서 2-3으로 석패했다. 이날 패배로 전남은 3연승과 11경기 무패가 모두 중단됐고, 선두탈환 기회 역시 놓쳤다.

이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약 70일간 패배가 없이 달려왔는데 이렇게 끊어진 것이 안타깝지만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다행이다”며 “이런 때일수록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잘 추스려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은 이날 경기 상대에게 허용한 유효슈팅 세 개가 모두 실점으로 이어졌다. 반면 전남은 18개의 슈팅 중 다섯 차례만 유효슈팅으로 연결됐고, 이 중 두 차례가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 감독은 “상대 유효슈팅 세 개로 세 골을 실점했다는 것이 데이터적으로 너무나 아쉽다”며 “많은 분들이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감독으로서 그 말이 가장 듣기 싫다”고 토로했다.

그는 운칠기삼(運七技三·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



이 아닌 운에 달려 있다는 말)이라는 사자 성어를 모든 팀 구성원의 노력으로 이겨낼 것을 강조했다.

이 감독은 “우리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나”며 “너무나 쉽게 운에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이야기는 감독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거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들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감독은 부족한 관심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이날 경기까지 올 시즌 평균 관중 4182명으로 K리그2 12개 구단 중 3위에 오르며 지역민들의 사랑은 더 커진 상황이지만 더 큰 관심이 간절한 상황이다.

그는 “우리가 2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팀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끈끈한 힘이 된다”면서도 “지역민들의 사랑만큼은 더욱더 많이 받고 있다. 지역에서 모두 우리를 주목하고 찾아와주심에 감사하고, 더 함께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서구청 펜싱팀, 저변 확대에 구슬땀

펜싱교실 재능 기부 큰 인기
20가족 모집에 70가족 몰려

광주서구청 펜싱팀이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펜싱교실을 올해 꿈나무반(유치원생·초등 저학년생)과 가족반, 펜린이반(성인)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저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번 달 가족 펜싱교실은 30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40명이 신청해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광주서구청 펜싱팀은 지난 20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펜싱훈련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열었다. 이날 펜싱교실에는 박광현 감독과 이정함 플레잉코치를 비롯해 최은숙과 노선경, 허다정, 김상진, 김대연, 이서현 등 선수단이 일일 강사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날 가족 펜싱교실은 당초 15가족 규모로 계획됐으나 앞서 열린 꿈나무 펜싱교실 1~2기와 펜린이 펜싱교실이 인기를 끌며 20가족으로 확대됐다. 특히 인원 확대에도 70가족이 몰리며 100명의 신청자가 아쉬움을 안았다.

이처럼 펜싱교실이 뜨거운 열기를 보이며서 남은 회차 역시 규모가 확대됐다. 오는 26일 펜린이 펜싱교실은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려 모집 중이고, 27일 가족 펜싱교실은 15가족에서 20가족으로 확대해 모집을 마쳤다. 11월로 예정된 가족 펜싱교실 역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광주서구청 펜싱팀 코치진과 선수단에게 예



광주서구청 펜싱팀이 지난 20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펜싱훈련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개최했다.

광주서구청 펜싱팀 제공

종목의 기본 동작과 자세를 배우고, 실제 센서가 부착된 펜싱복을 착용하고 연습 경기를 치르며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펜싱과 친숙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가족 펜싱교실에 참여한 한 가족은 “펜싱이 평소 접해볼 수 없던 종목이라 흥미로웠다. 실제 경험해 보니 체력 단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도 됐다”며 “선수들의 시범도 보고 직접 지도도 해주셔서 안전하게 펜싱을 즐길 수 있었다. 펜싱교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일 강사로 나선 최은숙은 “펜싱이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룹을 나눠 기초부터 대련까지 수준별로 지도해드렸다”며 “펜싱은 집중력과 판단력, 전략적 사고력 등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다. 펜싱의 매력을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서구 펜싱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규빈 기자